

영어에 대한 自信感 효과

제1회 韓美다문화가정 3일간 영어 문화캠프

제1회 한미 다문화가정 영어 문화캠프가 8월14일부터 3일간 푸른 초장교회(신상록 목사)와 한국박물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New York Rainbow Center(대표 김순옥)의 한미 다문화가정 청년들과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소장 신상록)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Rainbow Center와 포천다문화가정 지원센터는 문화와 언어의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매해 지속적으로 영어문화캠프를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조별활동을 통해 친교를 나누며 3일째에 있을 영어연극(상징정)을 준비했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형, 언니들과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하며 만남이 시작되었고, 끝날 때는 서로

안고 영어로 인사를 하며 사랑을 나누는 모습 속에서 7가지색으로 나뉜 무지개가 아닌 빨강에서 주황으로 주황에서 노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셋째 날 오전에는 상징호수 근처의 한국박물관을 견학해 직접 한과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셋째 날 영어연극(상징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보여졌다. 못하겠다고 하던 친구들이 자신 있게 Yes, Yes, Am I dreaming? 라는 대사를 통해 정말로 꿈처럼 자신들의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번 캠프는 뉴욕 무지개의 집 청년들에게는 한국과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고, 한국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선진문화시민 되기 위해 노력 당부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일동 민속장터에서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회장 이병영)는 8월27일 일동민속장터에서 일동면, 화현면위원회 위원 50명이 참석하여 행이나 상가의 상인을 제철할 수 있었고, 한국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날 캠페인에 참가한 지정옥 여성회장은 "2008년을 법질서 확립 원년의 해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하여 범국민 질서지킴이 운동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 안정과 준법질서를 확립하는데 모든 시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국·계간문예지인천축제



전국계간문예지인천축제는 8월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인천광역시 가천인력개발원에서 제10회 전국계간문예지인천축제를 개최했다.

전국계간문예지인천축제의회는 8월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인천광역시 가천인력개발원에서 제10회 전국계간문예지인천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개회식, 문학세미나, 시와 노래의 밤으로 첫날을 수

놓고 둘째날에는 인천 차이나타운,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소래 생태공원, 소래포구등 인천투어로 마련됐다.

문학세미나는 '지역문화를 새롭게 읽는다'라는 주제로 최원식 인하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의 기조강

'地域文學을 새롭게 읽는다'

제10회 전국계간문예지인천축제 개최

연에 이어 세계화와 지역문화(구호), 한국문학의 토양을 객토할 지역 문예지의 역할(이희환), 다시 생각하는 지역문학의 운동성(김동운)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다시 생각하는 지역문학의 운동성에 대해 김동운 문학평론가는 지역문학운동은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지역문학의 현실에 대한 진지한 진단과 성찰이 없이 지역문학을 운운한다는 것은 년센스라고 주장했다. 또 행은 문학의 자율성 운운하며 그런 현실과 문학은 별개라고 말할 지 말 것과 그런 생각을 추호라도 지니고 있다면 아예 지역문학을

두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 끼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동운 문학평론가는 지역적 삶을 바탕으로 삼는 가운데 문학적 실천이 전개되어야만 지역문학이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계간 리포티아가 주관하고 인천문화재단이 후원했으며 ▶다중 ▶리포티아 ▶문예연구 ▶시와반시 ▶시와시람 ▶시와사상 ▶시와시화 ▶열린시화 ▶3의문학이 회원사로 참가했으며 ▶미네르바 ▶문학마당 ▶시에 등이 초대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영북종합고등학교 校名 영북고등학교로

2009년부터 학교 이미지 제고위해 교명 변경

영북면 영북종합고등학교가 영북고등학교로 변경된다.

포천교육청 3층 소회의실에서 오정순 포천교육장 주재로 지난 25일 오후 3시 개최된 학교명정선위원회에서 참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학교명이 변경되었다.

영북종합고등학교는 1969년5월6일 영북면 운전리 334번지에 영북농업고등학교로 개교했고 1971년 1월28일 상업과 신설됨에 따라 영북산업고등학교로 학교명 변경되었으며 1973년3월1일 보통과가 신설되고 농업과가 폐과되어 영북종합고등학교로 학교명이 변경되

었고 1991년9월20일 정보처리과를 신설하여 영북종합고등학교 학칙을 변경했다.

이해인 2000년9월21일 상업과가 폐과되어 영북종합고등학교 학칙이 변경되었고 2008년5월8일 2009학년도 학교명칭 변경 승인신청을 하여 이날 심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영북지역 중심학교로서 학교이 미지변신과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재학생, 학부모, 동문회 및 지역사회에서 학교명 변경을 적극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조돈창 경기도 교육위원은 인사



포천교육청에서 지난 25일 개최된 학교명정선위원회에서 참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영북면 영북종합고등학교가 영북고등학교로 변경되었다.

말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고 학교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현 시대의 추세에 맞는 것으로서 경기지역특성과 교육요구를 위해 새로운 프랜즈로 특성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교명칭이 변경이 승인됨

에 따라 영북종합고등학교는 2009년 3월1일부터 영북고등학교로 학교명이 변경되며 포천시에서는 2006년 포천일고의 교명이 변경된 전례가 있다.

김미경주부영예기자단 부단장 hsd5333@hanmail.net

월빙 부사의(不生意) 고난(苦難)과 역경(逆境)

고난은 고초(苦楚)라고도 한다. 고난이란 말엔 두 가지 의미(意味)가 숨어 있다. 하나는 괴롭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렵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네 가지 괴로움을 말했다.

첫째는 만나고 싶으나 만나지 못하고 괴롭고 둘째는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하니 괴롭고 셋째는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고 넷째는 할기가 너무 왕성해 주재할 수 없어 괴롭다고 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苦海)라 한 것이다. 생사 모두 고(苦)를 벗어난 것이 없다는 말이다. 이처럼 생과 사의 괴로움 가운데 오가는 것이다. 숙명적(宿命的)으로 고를 안고 사는 것이다. 이 세상 고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사(世上事) 고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어렵다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다. 시험 문제가 어려워져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살기가 어려워

고난의 전제(前提)가 역경이다

힘드는 것이다. 경제적(經濟的)으로 쪼들려 생활해 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인생살이가 고생스럽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고생은 나이 들어 하는 게 아니다. 초년에 세 파(世波)와 싸워 이겨야 성공할 수 있고 탄탄대로(坦坦大路)의 말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지에서 날갯짓을 열심히 해뒀어 후일 동지를 떠나 검푸른 창공(蒼空)을 마음대로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년(初年) 고생은 천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말이 있다. 젊어서 고생하는 것이 그만큼 값지다는 말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지 않았다. 무슨 소릴 하는가? 고생을 한 해 보라. 고생이 뭐 좋다고 그런 말을 하는가? 고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나이가 들면 그 말이 가슴에 와 닿기 시작했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초년 고생은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생을 해보아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배고파 보야

배고픈 실음이 어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배 고플어 보야 세상(世上)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온실(溫室)에서 자란 화초는 외풍(外風)을 이길 수 없다. 과보호(過保護)했기 때문이다. 노지(露地)에서 자라면서 비바람을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초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에게 길들여진 새는 날지를 못한다. 스스로 살아가지 못한다. 방사한 반달곰이 다시 인가(人家)를 찾는 이유이다.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먹이사냥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고생하면서 배우야 한다. 그것도 초년에 그렇게 해야 한다. 초년에 한 체험이 평생(平生)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초년에 고생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쓴맛을 모른다.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눈물어린 빵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난(苦難)이 악이다. 고난을 고초(苦楚)로만 생각지 말고 약으로 승화(昇華)시켜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고난과 역경(逆境)은 이웃사

촌이다. 고난의 전제(前提)가 역경이기 때문이다. 역경이란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불운(不運)한 처지를 말하는 것이다. 고생이 많은 불행(不幸)한 처지를 말하는 것이다. 불운한 처지나 불행한 처지는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말이다. 불운하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불세불유(不塞不流)란 말이 있다. 막혀야만 넘쳐흐를 수 있다는 말이다. 막힌 것만을 탓하지 말라는 말이다. 불운을 행운(幸運)으로 뒤바꿀 수 있는 지혜(智慧)를 발휘하는 것이다.

절처봉생(絶處逢生)이란 말도 있다. 절지(絶地)에서 생을 만난다는 말이다. 절지에서 살아난다는 말이다. 절처란 역경을 말하는 것이다. 역경을 나쁘게만 보지 말라는 말이다. 만월(滿月)보다 초승달에서 희망을 보라는 말이다. 고난과 역경에서 희망을 보라는 말이다.

<011-9262-4491>

관람기 뮤지컬 '루나틱' 을 보고

8월15일은 우리 부부 '결혼기념일'이다. 결혼할 당시 의미 있는 날을 선택하자고 8월15일 광복절을 택했었고 덕분에 친구들이나 형제들 중 기억해 주는 이가 더러 있다. 요즘 사람들처럼 대단한 이벤트는 없지만 그래도 영화를 본다거나 연극을 보려고 대학로를 찾기도 했다.

올해는 '굿네이버스'에서 회원들에게 소개한 60만 명이 보았다는 뮤지컬 '루나틱'을 관람하기로 하고 남편과 딸과 함께 세종문화회관을 찾았다.

루나틱의 배경은 정신병원에서 그곳에 오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다. 그 병동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사건을 가지고 살맛이 가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다. 많은 여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으나 진정으로 사랑한 한 여자가 자신을 만나고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죽자 그 죄책감으로 미쳐 버린 플레이보이의 기질의 남자(나재백).

평생 뒷바라지한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할머니(고독해) 아들인 18번째 생일선물로 어른의 세계로 입양시켜주려고 사탕가로 데리고 간 아들이 그곳에서 병을 얻어 죽음에 이르자 미쳐버린 아버지

(주대표). 자신은 지극히 정상인이고 다른 사람들, 이 세상을 저주하는 남자(정상인) 이들은 이유가 있어서 미쳐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한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 지는 걸까? 행복한 삶에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일까? 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고민들로 밤잠을 설쳤던 적이 있을 것이다. 서로 잘났다고 뽐내며 남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이제 관객들에게 루나틱 정신병원은 더 이상 미친 사람들의 공간이 아닌 상처받은 영혼, 아픈 마음을 치유 받을 수 있는 행복한 장소이며 제 발로 찾아온 관객들은 이제 정신병이라는 이유로 세상에 버림받은 네 사람을 자신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된다. 정상이었다고,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울부짖는 정상인의 질투 가운데 정말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생각해봤다. '실질만 미치면 행복해진다.'라는 문구가 가슴에 강하게 메아리쳐 오며...



강기속 주부영예기자단 영평면지부장

ESSAY 딸아이의 첫 월급

"유니야 축하한다. 니가 1학년 전체 수석이더구나. 축하한다. 짹짹~~~ 추가추가"

딸아이의 핸드폰으로 온 주인공의 문자메시지입니다. 가슴 뭉클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저의 한 마디에 딸아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는 공부를 꽤 잘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늘 상위를 유지했고 고등학교에서는 늘 전체 수석을 한 아이입니다.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고, 새벽에 신문배달로 용돈을 벌고, 저녁엔 토피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폰폰이 저축도 하는 알뜰하고 착한 딸입니다.

그런 딸이 집안 형편 때문에 서울장안의 빈틈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면 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대학에서 꼭 장학금을 받았다고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한다고 했을 때는 뜻밖에도 부모가 아이를 걱정한다 생각하니까 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전문대학이다. 장학제도가 부실하여 정교생 240명 중에 1등을 해지마만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는 장학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년을 휴학하는 동안 딸아이는 폰폰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모은 돈으로 운전면허를 따왔습니다. 1년 후 2학기에 다시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더니 All A+, 평균 98.5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새벽 신문배달을 하고 낮에 학교 다니며, 밤에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나면 밤을 새워 과제를 하고, 시험공부를 하더니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딸아이가 첫 월급을 받고 저에게 선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딸아이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인 언니와 함께 신문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석간신문인 중앙일보지국을 운영하고 있던 저는 두 아이에게 신문을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배달하도록 시켰습니다.

오후 4시경인 한 낮에 몇 부 되지 않는 신문을 배달하던 큰 딸과 작은 딸은 무척 재미있어 했습니다. 동네에서 아시는 분들이 모두 알아봐 주시고 착하다고 칭찬도 해주시며 과자와 용돈 등을 주시기도 했기 때문이죠. 과자나 용돈을 주시면 절대로 받으면 안된다고 아이들에게 교육도 시켰죠. 그리고 한 달이 지

나 아이들에게 첫 월급을 2,000원 씩 주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면 원래 부모님께 숙곳을 선물로 사드리는 건데 너희는 엄마, 아빠에게 무얼 사줄래?" 하고 남편이 장난삼아 묻자, 아이들은 공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나가서 컵 라면 4개를 사두고 들어 왔습니다. 2개는 엄마 아빠 것, 그리고 2개는 저희를 갖기 라면서 좋아하는 아이들이 대견하여, "고맙다. 잘 먹어주세요." 인사하고 우리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컵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신문을 배달한 지 몇 달 후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하나씩 사 주었습니다. 뒤에 보조바퀴가 달리고 앞에 조그만 바구니가 달린 어린이용 자전거였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월급으로 사주는 거니까 너희들 거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월급도 더 많이 받아 너희들 용돈으로 쓰고 저축도 해라." 하고 말하자 아이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자전거가 생겼으니 자연 신문배달 부수도 늘어나고 구역도 더 넓어졌죠. 월급도 더 많이 받구요. 월급의 절반은 저축하고 절반은 용돈으로 쓰고요 일주일에 한번씩 나눠 주었습니다. 몇 년 후 아이들이 자라남에 따라 자전거도 큰 것으로 바꾸어 타고 다니며 배달을 했고, 막내아들도 5살 때부터 누나들을 따라 신문 1부를 들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게 되면서 시내의 우리 아이들이 모두 배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첫 월급을 타던 옛날 얘기를 딸아리와 하면 무척 재미있어합니다. 지금도 그 시절을 또렷이 기억하며 당시 내가 하던 말까지 그대로 흉내내어 장난을 치는 딸이 대견하고 미담입니다.

그 딸이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준비를 위해 연수를 받고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김 여사, 영영이가 뻥뻥해...." 제 영영이를 손으로 톡톡 치며 장난을 치는 딸아리...저는 눈을 흘기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은 내색을 합니다.

동네에서 매느리감 1호로 전 찍히고, 이쁘고 착한 딸로 소문난 우리 딸. 지금까지 건강하게, 밝고 너그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김미경 주부영예기자단 부단장

현대의 차 문화 2. 차와 차문화

독이 없고 독을 해독하는 고마운 존재

차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차 나무의 근원은 크게 중국남부 운남성과 인도 아쌌지방의 차나무를 태초의 차나무 원종으로 보고 그 종들이 각지역으로 퍼져가며 진화하여 오늘날의 차나무가 되었다고 본다.

지역마다 종이 다른 차나무에서 얻어지는 차잎들은 각기 지역마다 특색 있는 고유한 섭취 방법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차는 인체에 매우 유익한 약리 작용을 갖고있다.

그 중에 카테킨은 체내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황산화작용이 있다. 특히 운남성의 남부에서만 산출되는 보이차는 차나무가 진화 해 오는 종의 초·중기 단계에 있는 열성인 강한 품종의 차잎으로 만들어 지는데, 보종의 차잎 가공 방법으로 차를 만들 경우 음용하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후 발효라는 숙성 기간을 거치는 동안 새로운 성분이 더해져서 몸에 유익한 차로 탈바꿈된다.

또 화차라는 모리화차라고 불리우는 꽃차가 있는데, 이는 차의 성분에 꽃들의 향기를 더해서 만

드는 인위적 가공력이 많이 추가된 차이다. 원재료는 모두 차잎 또는 차의 농축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특유의 향기를 즐기려는 분들이 자주 찾게 되지만, 꼭 특성을 잘 알고 우려 마시거나 한을 말도록 해야 한다.

차는 태초부터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서 약으로써 식품과 음료로서 이용 되어온 독이 없고 독을 해독하는 고마운 존재로 함께 해 왔음에도 일반인들에게 대중성 있게 자리잡기가 어려운 것은 차의 특성과 성분 등 인체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 일 것이다. 음차 생활 즉 다도를 즐기는 다인들은 그 매력에 감화되어 이웃에게 권하고 함께 차차리를 하며 이웃과 즐거운 대화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

근대 우리의 차 문화는 강진에 있는 다산 초당과 해남의 일지암에 남아 있는 초의선사의 발자취, 그리고 제주도 윤림산방의 소치선생 유적지, 추사 김정희의 진주 유적지에서 구제적이고 면밀한 기록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종교 예술 문화 철학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차문화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차와 술은 하나라고 생각하는 논단에도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차주일체(茶酒一體)라 하여 차마시는 것은 술마시는 것과 같다는 이론인데 이는 옳지 않다고 본다. 차문화와 술문화는 다르고 역사적 배경 역시 술과 차는 구분되어 지기 때문이다. 차는 고급문화화 건강과 철학과 예술과 학문의 문화이다.

차가 융성했던 고려시대는 차가 생활 속에서 다반사로 이용되었고 조선시대에 쇠퇴하다가 이제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음료가 되었다. 합부로 음용하는 것 또한 주의 할 사항이다. 문의:011-9750-1883



황무연 차장대표